

“정보 자료의 분류에 관한 연구”

—Nonprint 자료를 중심으로—

주영주*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정보 자료의 분류 | 참고문헌 |
| III. Nonprint 자료의 분류 | |

I. 서론

Nonprint 자료가 현대 개념의 도서관에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nonprint 자료라 함은 재래적인 형태의 책 이외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데, 모델, 쳐트, 지도, 그림, 디스크, 슬라이드, 필름 스트립, 마이크로 필름, 영화 및 비데오 테입 등의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이들 nonprint 자료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은 2차 세계 대전 중 군인의 훈련에 사용되어 큰 효과를 보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자 공공 도서관은 물론 학교 도서관에서까지 이들을 자료의 일부로 취급하게 되었다(Wisdom, 1974 : 120).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나 종류의 자료들도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때에야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체계적인 규칙에 의해 분류되어져야 한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단지 쓸데없는 쓰레기더미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nonprint 자료를 기존 도서의 극히 일부분으로 여겨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도서에 비해 형태나 종류가 다양하여 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있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

여기에 반해 이들 nonprint 자료만을 다루는 시청각 센타에서는 도서에 비해 가격이 비싼 시청각 자료의 효과나 특수성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별도의 분리된 정리 및 관리 체계를 고집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주영주, 1985 : 22-23).

사실상 도서 자료는 그 내용에 의해 분류되어질 때 사용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주제를 찾아 쓸 수 있으므로 특정 자료실의 규모, 특성 및 사용자를 고려하여 DDC, LCC 또는 KDC 등의 통일된 분류 규칙을 선택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nonprint 자료는 그 종류나 형태가 다양한 점 이외에도 크기나 대출 방법 등이 도서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 이외에 그 형태에 의해서도 분류를 해 줌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자료의 분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분류 규칙(DDC, LCC 및 KDC)을 살펴보고 실제로 nonprint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용되어 온 ‘종류별 분류 시안’, ‘과목별 분류안’, ‘시청각 교육 자료 분류 기준안’, ‘도서 관계 기관의 분류안’ 및 ‘시청각 자료의 분류안’ 등의 제 분류안을 고찰하였다.

비록 이들 분류안들이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그 보급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규칙으로 내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까지 산발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오던 제 분류안의 특성과 문제점 및 개선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nonprint 자료의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규칙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전반적인 nonprint 자료의 분류안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나 개개 자료마다의 분류 규칙을 계속 연구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통일된 규칙의 제정이 있어야 하겠다.

II. 정보 자료의 분류

A. 자료 분류의 개념 및 필요성

미국 국회 도서관은 1985년 말을 기준으로 천 팔백 만여 권의 도서와 팔천 백 만여 점의 그림, 디스크, 영화 필름, 지도, 컴퓨터 디스크, 비데오

태입 등의 nonprint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매 해 백 오십 만 점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가운데 삼십 오만 점만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는 470여 가지의 제각기 다른 언어가 사용되어 그 양과 종류 및 형태가 서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Voice of America, 1985 : 6).

그러나 아무리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자료가 일정한 체계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미국 국회 도서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종류의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다면 이는 거대하고도 혼란한 자료의 집합더미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료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료를 더욱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식, 즉, 유사한 특성이나 질에 따라 무리치어 체계적으로 배열을 해야 하는데 이때 유사하다는 것은 내용, 종류, 형태, 크기, 색깔 혹은 그 외의 양상에서 같은 성질을 지님을 이야기한다.

대개의 경우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작가에 대한 정보나 제목 그 자체보다는 자료의 내용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책이나 기타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작가나 제목을 알파벳(혹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정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들 자료의 주된 사용 목적이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찾기 위함에 있으므로 같은 주제의 것들이 인접해 있으면 편리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료는 크기, 발행 년 월 일, 수입 일자, 및 저자명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하며 비슷한 내용의 주제가 모여 있되 일정한 체계에 의해 배열될 때만이 원활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학문을 간소화시킨 문자로 기호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인접한 주제로 접근시켜나감으로써 주제별로 체계있게 구분해 나가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즉 분류란 우주상의 모든 지식을 일련의 규칙에 의해 체계있게 순서적으로 조직하는 행위로서 사용자가 정보 자료에 포함된 원하는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The ALA Glossary'에서는 분류를 특정한 원리나 개념 또는 목적이나 흥미에 의해서 내용을 종류별로 배열해나가는 체계라고 했다. 또 물체나 개념을 정열해나가는 방법이나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다(ALA, 1983 : 44).

'도서관 용어집'에서는 분류란 체계적으로 편성된 분류표에서 한 도서의 내용, 주제 또는 형식에 일치하거나 접근 또는 유이한 분류 번호를 찾아서 그 도서에 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한국 도서관 협회, 1966 : 56).

도서관학의 거두 Sayers는 도서관이나 정보실에서의 분류 행위란 특정 정보를 찾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가상에 도서 및 기타의 주제 혹은 목록이나 색인 기입의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자료 분류를 정의하고 있다(Maltby, 1978 : 15).

김정소는 도서관에서의 자료 분류를 도서관 자료를 주제나 형식의 유사성에 따라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자료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자료의 대상을 도서관 자료로 제한하였고, 분류의 기준을 자료의 주제나 형식으로 한정하였다. 또 분류의 방법을 유사성에 따라 모으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데 두었으며 자료 이용의 편리에 분류의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1984 : 29).

Nonprint 자료 분야에서도 도서관학에서의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내렸으나 분류 자료의 대상을 도서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잡은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에서는 분류란 자료를 정해진 기준에 의해 무리지어 체계적으로 배열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Gillespie & Spirt, 1983 : 282).

또 AECT는 분류란 주제나 형태에 따라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일련의 심볼을 사용하여 주제를 순차적으로 부호화하게 된다고 했다(AECT, 1979 : 201).

이와 같은 여러 단체나 학자들의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분류란 도서 또는 nonprint 정보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정과 분류표를 적용하여 주제나 형식과 일치 또는 근접한 분류 기호를 배정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정보 자료는 이용자가 이를 널리 사용할 때에 그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이나 미디어 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

는 적절한 분류체계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자료를 분류하면 여러 가지 잇점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이용자의 입장과 도서관 실무자의 입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국회, 1969 : 36-38).

〈이용자 입장〉

- ① 장서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② 논리적,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특정 주제에 대한 도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 ③ 유사 또는 관련 주제의 자료가 한데 모아져 있어 관련 주제의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④ 원하는 특정자료가 없어도 다른 자료를 대신 고를 수 있고 저자명, 서명을 몰라도 찾을 수 있다.
- ⑤ 분류 기호를 기억하면 자료의 검색이 용이해져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 ⑥ 특정 주제의 참고 목록 작성이 편하고 지식의 조직화 및 체계화가 용이하다.

〈도서관 실무자 입장〉

- ① 장서의 류(類=class)별 분포 상황을 알려주어 선택, 보충, 제거 등의 관리가 용이하다.
- ② 류별에 의한 이용 경향 조사를 용이하게 한다.
- ③ 출납 대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 ④ 장서 목록 및 특수 주제에 관한 목록 서지를 쉽게 작성하게 한다.
- ⑤ 도서의 점검을 쉽게 하게 한다.
- ⑥ 표준 분류표를 사용하면 도서관 간의 분류상 참고와 협력을 가능케 하고, 인쇄 카드를 사용하면 업무가 간략해진다.

B. 자료 분류법의 종류

현재 전 세계에는 약 50여 종류의 분류표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나(강미혜, 1982 : 38) 그 중에서도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Melvil Dewey의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듀이 십진 분류법), 미국 국회 도서

관의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미국 국회 도서관 분류법), 국제 서지 학회 (Institute International de Bibliographie)의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UDC=국제 십진 분류법), James Duff Brown의 Subject Classification (SC=주제명 분류법), Henry Evelyn Bliss의 Bibliographie Classification (BC=서지 분류법), Charles Ammi Cutter의 Expansive Classification (EC=전개식 분류법), 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의 Colon Classification (CC=콜론 분류법) 및 일본 도서관 협회의 Nipon Decimal Classification (NDC=일본 십진 분류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분류법으로는 한국 도서관 협회의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한국 십진 분류법), 박봉석씨의 한국 십진 분류표 및 한국은행에서 만든 한국 은행 도서 분류법 (HUDC)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류법들은 류(class)나 강(devision)을 나타내기 위하여 분류 도구로서 특정한 심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심볼은 주제를 간략히 나타내게 되고 이들 사이의 상관 관계나 체계적인 나열을 위해 순차적인 배열을 제공하게 된다.

이들 방법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분류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다만, 분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양 및 사용자나 담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겠다.

본 장에서는 특히 Nonprint 자료의 내용 분류에서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추천되고 있는 LCC와 DDC 및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KDC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뉴이 십진 분류법

Comaromi와 그의 동료가 한 'A Survey of the Use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에 의하면 북미에서는 85.4% 가 DDC를, 14.6%가 LC를 쓴다고 했다. 또 Joel Dawning이 "Dewey 분류법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만 보더라도 DDC가 북미는 물론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다(Bakewell, 1978 : 13).

1873년 Melvil Dewey는 그가 다니면서 보조 사서로 일하던 Amherst 대학의 도서관 장서 구성이 무질서하고 불합리함을 보고 이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즉 당시까지는 책의 크기, 저자명의 알파벳 순, 수입 순, 색

체 등에 의해 도서를 배열하였는데 이는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시한 쳐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숫자를 사용하여 도서의 주제 내용을 분류하는 체제를 창안하였는데 비록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은 받았으나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1876년에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란 제목의 총 44 페이지에 달하는 DDC 초판이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날로 발달되는 학문과 세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끊임없는 변경과 개발이 있어 왔는데 거의 평균 7~9년마다 개정판이 나왔으며 이는 Dewey의 사후에도 계속되어 가장 최근에는 1979년에 제 19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DDC는 미국 내의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는 물론이고 북미, 남미 대륙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120여 개의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Dewey는 그의 분류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Aristotle, Bacon, Locke 등이 지식을 분류했던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철학적인 기초를 쌓은 반면, 당시 이태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던 Natale Bettiuzzati의 Nuova Sistema di Catalogo Bibliografico Generale(일반 목록용 분류 목록), St Louis Public School Library의 W.T. Harris의 분류표 및 New York Appentice Library의 Jacob Schwarts의 분류표 등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에도 50개 이상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분류 방법을 조사·연구하였다(국회, 1969:101).

그 중에서도 인간 지식을 인간 마음의 세 가지 기능인 기억(memory), 상상(imagination) 및 추론(reason)에 대응시켜 역사, 시 및 철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던 Francis Bacon의 분류법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W.T. Harris의 주류 분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Chan, 1980:217-18).

Dewey는 실진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간 세상의 지식을 크게 9개의 류(class)로 구분하고 그 어디에나 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종류라 불렀다. 그리하여 종류를 혼돈이라고 한다면 이 혼돈에서 유출된 최초의 사람다운 특성인 이성, 즉, 정신을 최초의 류인 철학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추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사람을 만든 신적인 위력을 두

번체인 종교로, 사람이 모여 가족과 부락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자 사회학을 제 3의 류로 생각하였다.

타인과의 교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언어이므로 언어학을, 사람은 그 환경에 있어서의 지식이 여하히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과학이 수반되어야 하고 배워서 얻은 생명을 유효히 보존하는 과정으로 유용기술이, 이를 미화하기 위해 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통해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문학과 역사라고 설명하며 (임종순, 1963 : 3-4)류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10 구분하였다.

- 0 Generalities (총류)
- 1 Philosophy & Related Disciplines (철학)
- 2 Religion (종교)
- 3 Social Sciences (사회 과학)
- 4 Language (어학)
- 5 Pure Sciences (순수 과학)
- 6 Technology(Applied Sciences) (공학-응용과학)
- 7 The Arts (예술)
- 8 Literature(Belles-letters) (문학)
- 9 General Geography & History (일반지리 및 역사)

위와 같은 주류는 주제에 따라 100개의 강(Devision)으로, 이는 또다시 1,000개의 목(Section)으로 나뉘어지게 고안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류, 강, 목의 세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도서의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이들 단위 다음에는 소속점을 찍음으로써 제 4 단위인 분목(Sub-Section) 이하의 세목을 전개시켰다.

이를 시작적 교수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00 사회 과학
- 370 교육학
- 371 교육학 총론
- 371.3 교수 학습 방법
- 371.35 학습 자료 및 고안
- 371.355 교수법(시각적)

DDC는 그 역사가 이미 백 년 이상이나 되며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

는 관계로 그 장단점도 거의가 유사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① 분류표의 조직이 단순 간단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배우기 쉽다. 특히 조기성이 풍부하여 암기가 쉬우며 실제 적용이 용이하다.

② 기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세계 공통적인 분류표라 볼 수 있다.

③ 개개의 도서관의 특성이나 설정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에 따라 분류표를 완전판과 간략판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융통성과 적용성이 있다.

④ 1876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끊임 없이 개정판이 나옴으로써 학문의 새로운 발전과 그 속도를 맞추어 나갈 수 있다.

⑤ 정밀하고 방대하고 편리한 상관 색인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DDC도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① 지식을 역사, 시 및 철학으로 3 구분한 Bacon의 이론을 거꾸로 적용하여 분류 체계가 약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400의 언어와 800의 문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주제의 전개가 비논리적이다.

③ 인간 세상의 지식을 9 구분함은 융통성이 부족하여 인위적이고 기계적이라 볼 수 있다.

④ 문명과 공학 등의 발달로 인해 출현한 새로운 주제의 삽입이나 전개가 곤란하다.

⑤ 미국이나 구미 본위로 조직되어 있어 동양에 관한 내용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⑥ 종교(200대)에서 너무 기독교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어 타 종교가 소홀히 다루어졌으므로 타 종교의 분류가 어렵다.

2. 미국 국회 도서관 분류법

1975년 Mowery가 행한 조사 연구 'The Trend to LC'에 의하면 1968년에 서 71년 사이에 159개의 대학 도서관이 DDC에서 LCC로 전환하였고 세 도서관이 기타의 방법에서 LCC로 바꾸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고 했다(Bakewell, 1978 : 55-56).

① 교수진들이 원해서

② 사서들이 많은 양의 장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또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 ③ MARC 테입의 사용이 편하고
- ④ 사용자가 National Union Catalog로부터 곧장 서지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 ⑤ 전문 요원들이 LCC에 의해 분류되지 않은 책만 분류하면 되므로 이와 같이 그 사용 도서관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미국 국회 도서관 분류법도 초기에는 지금과 같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1800년에 처음으로 국회 도서관이 생겼을 때는 책의 크기에 의해 분류하였다. 그 후 Franklin의 18개의 주류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인해 Jefferson의 사서가 합쳐짐으로써 44개의 주류로 분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이를 분류법은 현재의 LC와 그 맥을 같이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890년 보유 자료의 수가 백 만에 달하게 되고 1897년 국회 도서관이 자체의 건물을 갖게 되면서 자료는 백 오십 만을 넘게 되었고 매년 십 만 점 이상이 추가되었다. 또 미국 국회 도서관이 해마다 저작권 승낙용의 자료나 기증 등에 의해 여러 출처로부터 수없이 많은 자료를 입수함에 따라 초기의 목적이던 국회 의원들에게의 봉사를 떠나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분류 방법의 고안이 절실히 요구되어 Herbert Putnam은 현재의 LCC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의 분류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를 작업을 위하여 당시 국회 도서관의 목록과 분류를 책임지고 있던 Hanson과 Martel은 그 당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세 가지 기존 분류법을 검토 고려하였다.

그 중에서도 DDC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분명하고도 쉬운 분류 원리를 가져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Dewey 자신이 DDC를 LC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제일 먼저 제외되었다.

Otto Hartwig의 Halle Schema 법은 너무 전통적인 독일 철학을 중심 사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LC의 목적과 잘 맞지 못했다. 그리하여 Charles Ammi Cutter의 EC를 기초로 하여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중 다섯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류로 사용하게 되었다(앞글 : 98-100).

LC 분류법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주류는 21개의 문자 중(알파벳 중 I, O, W, X, Y는 장차 있게 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위하여 비축해 두었다) 하나로 분류되며 이들은 다시 또 하나의 문자와 결합되면서 세분된다.

이들 알파벳은 다시 필요에 따라 1에서 9999까지의 보다 세분화된 주제로 나뉘어지므로 방대한 주제를 세분할 수가 있어 장서의 수가 많거나 특정 주제를 세분할 필요가 있는 특수 또는 연구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Piercy, 1974 : 71).

LC에서의 주류는 아래와 같다.

- A 종류
- B 철학, 종교
- C~F 역사
- G 지리학, 인류학
- H 사회 과학(경제학, 사회학)
- J 정치학
- K 법학
- L 교육학
- M 음악
- N 미술
- P 어학, 문학
- Q 자연 과학
- R 의학
- S 농학
- T 공학
- U 군사
- V 해사
- Z 서지, 도서관학

이와 같이 구성된 LC는 나날이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Chan, 1985 : 282-83).

- ① 만족할 만하다고 까지 평가되는 실질적인 체계이다. Maltby는 이를 실용주의의 개선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 ② 학문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특히 학술, 연구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 ③ 방대한 열거식 체계이므로 최소한의 부호만으로도 주제를 나타낼 수 있다.

④ 각각의 스키줄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제네럴리스트(generalist)에 의해서가 아닌 주제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LCC도 다른 모든 분류법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코프 노트(scope note)가 DDC에 비해 뒤떨어진다.

② 용어의 사용이나 중점의 비중에 있어서 국가적인 편견이 있다.

③ 주제를 하나의 통합체로 보지 못하였다. 열거되지 못한 다양한 주제나 요소는 정확하게 분류되기 힘들다.

④ 논리적인 배열보다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⑤ 주제 분석을 위해 명확하고도 예측 가능한 이론적인 토대가 결여되어 있다.

3. 한국 십진 분류법

한국 도서관 협회 기술 위원회는 1964년 초에 한국 십진 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을 발표하였다. 이는 DDC, EC, LC, NDC와 박봉석의 한국 십진 분류표 등의 주요 분류표를 참고하여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만들었으며 외국의 분류표가 우리의 실정에 적합치 못했던 점을 보완하였으므로 한국의 실정에 잘 맞는 체계라 볼 수 있다.

한국 십진 분류법은 DDC에서 400의 어학과 800의 문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학을 700으로 이동시켜 문학과 인접시켜 놓았다.

또 DDC가 서양 위주로 분류표를 작성한 나머지 동양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devision)의 일부분과 많은 목(section) 및 세목(sub-section)은 일본 십진 분류법을 적용시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DDC를 참고하여 전체를 9개의 류(Class)로 나누고 총류에 0을 주었다.

- | | |
|---|-------|
| 0 | 총류 |
| 1 | 철학 |
| 2 | 종교 |
| 3 | 사회 과학 |
| 4 | 순수 과학 |
| 5 | 기술 과학 |

- 6 예술
- 7 어학
- 8 문학
- 9 역사

이들 열 개의 류는 그 주제에 따라 각자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배당하여 100개의 강(devision)을 이루고 100개의 강은 또다시 주제에 따라 십 구분되어 1,000개의 목(section)으로 분류되게 짜여져 있다. 또 이들 세 단계의 류, 강, 목 다음에는 소숫점을 사용하여 세목을 전개시켜 나가도록 고안되어 있다.

한국 십진 분류법은 1966년의 수정판에 이어 80년에 3판이 나옴으로써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이 있어 왔으며 DDC와 더불어 사서 교육의 중요 주제가 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그 보급의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한국 십진 분류법 해설’에서는 KDC의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이병수, 1981:30) 이는 NDC와 DDC를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게 개선시킨 결합체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장점〉

- ① 기호가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되어서 단순하고 국제적으로 통하며 기억하여 읊겨써서 배열하기에 편리하다.
- ② 신축성이 있어 각 관의 특성, 장서량 실정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를 교란하지 않고 분류표의 정조(精粗)의 제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③ 기호에 전개성이 있어 장래의 세목 전개에 배려될 수 있다.
- ④ 조기성이 있어 많은 조기표로 표를 전개할 수 있고 분류표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준다.
- ⑤ 분류 기호만으로도 상하 개념을 알 수 있다.
- ⑥ 분류표에 사용된 용어가 사실상의 체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⑦ 학문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적용 범위가 넓다.
- ⑧ 도서 이외의 각종 비도서 자료 및 색인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⑨ 상관 색인이 있어 편리하다.
- ⑩ DDC의 구미 본위에 대하여 한국 본위로 되어 있어 편리하다.
- ⑪ DDC보다 체계에 있어 우수한 부분이 있다.
- ⑫ 앞으로 수정, 보완 등을 수시로 행할 전망이 있어 지식의 신주제의 삽

입이 가능하게 된다.

〈단점〉

- ① 분류 체계가 역 Bacon 식으로 되어 학문의 분류로 보아 구식이다.
- ② 십진법(9구분)은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인위적, 기계적이다.
- ③ 조기성이 강조된 나머지 표의 전개가 불합리하게 된 점이 있다.
- ④ 창조성이 별로 없고 DDC, NDC 및 UDC, LC 등의 부분을 뜯어 맞춘 것 같은 부분이 많아 체계가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
- ⑤ 구분 방법이 불균형하고 주제의 전개가 논리적이 아닌 것이 있다.
- ⑥ 동위 상하 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기호가 길어지면 기억과 식별이 불편하다.
- ⑦ 오자가 많다.
- ⑧ 상관 색인이 잘 되어 있지 않다.

III. Nonprint 자료의 분류

지난 반 세기 동안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교수 자료의 효율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으므로 새삼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수 자료가 현대 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수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예가 빈번하다.

주 영주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재가 체계적인 분류법에 의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즉, 자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류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은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1984: 526-28).

도서 자료는 그 형태가 대체로 일정하고 활자로 인쇄된 글자를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된다. 하지만 Nonprint 자료는 그 종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내용만으로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일반 도서와 Nonprint 자료가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으나 자료의 정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형태나 크기가 대체로 일정한 도서 자료에 비해 Nonprint 자료는 그 종류, 형태 및 크기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일 예를 들어보면 녹음 자료의 한 유형인 녹음 테입은 다시 카셋트와 릴의 형태로 나뉘어지며 음반만 해도 7", 10" 및 12"의 크기로 제작되고 있다.

② Nonprint 자료는 인쇄 글자가 아닌 소리나 상을 매개체로 정보를 제공한다.

③ 대개의 경우 Nonprint 자료는 자료 자체만을 가지고는 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동반되는 기재를 활용하여야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즉, 카셋트 테잎을 카셋트 녹음기에 넣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테잎만 가지고는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한다.

④ 또 Nonprint 자료는 몇몇 자료들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나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이때에는 Package로 제작 판매된다. 즉 한 주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슬라이드와 녹음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매체적인 접근 방식(multimedia approach)이 흔히 사용된다.

⑤ 도서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일단 손상되면 수선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대출, 보관, 관리에 많은 제약성이 뒤따른다.

⑥ 도서는 개인 저자에 의해 집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Nonprint 자료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의 공동노력에 의해 제작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Nonprint 자료는 내용에 의해 분류되어야 함은 물론 형태에 의해서 2차로 분류 되어야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원하는 형태의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 분류 번호와 더불어 매체의 종류를 알려 주는 매체 부호가 필요하게 된다. AECT의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에서도 Nonprint 자료의 내용은 DDC나 LC 중에서 자료실의 특성이나 자료의 양 등을 고려해서 선택 사용하되 매체의 종류를 알려 주기 위한 2차 분류의 방법으로 매체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 두 자리의 영문자를 사용하고 있다(1976).

그러나 Nonprint 자료는 각 종류별 보유 양이 아직까지는 도서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내용 분류 방법이 어느 정도 통일된 미국에서도 각 자료실이나 도서실에서 DDC나 LC 외에 수입 순, 자료 크기 순, 또는 임의 주제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류되는 경우가 혼다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Nonprint 자료의 종류와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에 대

한 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자료의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그 양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조속한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어온 Nonprint 자료의 분류안을 살펴봄으로써 Nonprint 자료 분류법의 통일화 작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A. 종류별 분류 시안

우리 나라에서는 6.25를 계기로 하여 처음으로 시청각 자료가 소개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면서 일부 시, 도 시청각 교육원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을 시도했다고는 하나 체계를 갖춘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오희, 1972 : 21).

그러던 중 1965년에 당시 중앙 시청각 교육원 연구 보급 과장이던 이 준해는 각급 학교나 시, 군 교육 자료실에서 점차 늘어나는 교수 매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해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었으나 교수 자료의 분류에 대한 기초적인 시안을 발표하였다(조성선, 1983 : 100).

그는 교재를 내용별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담당자 임의로 교과목별, 단원별, 또는 주제별로 나누던 종래의 방법을 지양하였다. 그리하여 찾은 담당자의 교체나 교과 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었던 데에서 탈피하고 앞으로 있게 될 자료의 급증과 도서와의 분류법 통일화를 고려하여 KDC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시청각 교육 기재나 자료는 그 형태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도서와 같이 내용만으로는 분류가 힘들므로 기재를 0, 교재를 1에서 9사이의 수에 배당하여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른 십진 분류를 하였다. 이 기본 분류는 다시 각각 열 개씩의 세 분류로 나뉘어지게 고안되었다.

- 0 기재
- 1 사진, 그림, 음판 교재
- 2 도해 교재
- 3 영사, 환등 교재
- 4 청각 교재

- 5 실물, 표본, 모형, 목형 교재
- 6 연시, 극화 교재
- 7 실험, 실습 교재
- 8 견학 교재
- 9 기타 특수 교재

기재를 자료와 같이 류분류의 한 항목으로 취급한 점이나 항목별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기재까지를 세분류했던 점은 분류 작업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요지로 지적될 수 있지만 체계적인 분류 방법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각 학교에서는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안을 기초로 하여 Nonprint 자료를 정리해 나가게 되었는데 일반 교사들의 호응을 널리 받지는 못하였다.

B. 과목별 분류안

1968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선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성선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 수업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과목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대개의 교재가 교과목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제작되므로 자료를 과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활용이 편리하리라는 생각을 기초로 삼고 교과를 아래와 같이 종류별, 교과별로 십 구분하여 각각의 교과를 필요에 따라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주었다(강미혜, 1982: 40-42).

種 别 番 號	教 科 番 號	領 域
0. 機材・器具	0. 공통 및 특활	001~
1. V. T. R	1. 도덕	001
2. 영화필름	2. 국어(외국어)	국어 001 · 한문 501 · 외국어 701
3. 슬라이드	3. 사회	사회 001 · 국사 501
4. 투시자료	4. 산수	
5. 음향녹음	5. 자연(과학)	공통 001 · 생물 201 · 물상 401
6. 실물모형	6. 체육	지학 601 · 해양 801
7. 지도・지도	7. 음악	
8. 사진・그림	8. 미술	
9. 기타	9. 실과(기술)	
교. 교사연수자료		

이 방법은 특정 자료를 종류에 따라 십진 분류한 뒤 그 내용이 해당되는 주제 과목에 의해 2차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세분된 교과별 영역에서의 수업 순 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실제 적용의 예를 들면 2-3-521로 표시되는 자료의 경우, 2는 종류별 분류로 영화 필름을 뜻하고, 3은 교과 번호로 사회를 표시하며, 525는 국사 영역(501) 중 25번째로 입수한 자료임을 뜻한다. 즉, 사회 과목용 자료 중 국사 영역에 관해 25번째로 입수한 영화 필름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분류에 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자료를 분류하여 일선 교사가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은 지녔으나, 기재를 교재와 더불어 하나의 주류로 넣었다는 점과 교과 과정의 잦은 변경으로 과목의 통폐합이 있을 때마다 모든 자료를 다시 분류해야 한다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 자료에 따라서는 인접 여러 과목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영역 아래 포함시켜야 할지의 기준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못하였으며, 세부 영역별로 자료의 보유양이 100 항목이 넘을 경우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방법은 행정 기관이 만들어 권장 보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작업의 결과였기 때문에 일부 학교 자료실과 교사들에 의하여만 사용되었을 뿐 널리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C. 시청각 교육 자료 분류 기준안

1970년에 이르러 교수 자료의 분류기준과 그 적용이 전국적으로 구태의연함을 감안하여 분류 기준의 통일안 작성과 전국적인 적용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현실적 요청이 있게 되자 일차적인 작업으로 중앙 시청각 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정확한 실태와 의견의 기초 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오희, 1972 : 21).

그 결과, 교수 자료의 종류별 분류에 있어서는 전국의 과반수인 6개의 시, 도 교육 연구원에서만 이 준해의 안을 채택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극히 다양하고도 독자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각급 학교의 자료실은 더욱 구구한 방법을 쓰고 있음이 밝혀졌다.

Nonprint 자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3개의 시, 도

교육원만 한국 십진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교과별, 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별, 분야별, 성질별 등의 임의 분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기형, 1972 : 206-207).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앙 시청각 교육원이 주축이 되고 33명의 지역별 및 자료실 급별 자료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수 차례 결친 논의 끝에 내용별 분류에 있어서는 한국 십진 분류법을 사용하고 종류별 분류 기준은 65년의 시안을 토대로 삼아 임시안을 작성하였다(표 1, 2 참조).

65년도 안이 변경 보완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앞글 : 208-210).

- ① 기본 분류에 있어서 '교재'를 '자료'로 통일하여 표현.
- ② 영사, 환등, 자료의 세분류를 일부 통합하고 'VTR'을 신설.
- ③ 연시, 연극 자료의 세분류 중 '그늘 그림'을 '그림자극'으로 개칭.
- ④ 과학 자료(향토 자료)의 세분류 중 '인간 자원'을 기타로 변경.
- ⑤ 기재의 세목 분류 기준에 있어서 영사, 환등, 기재의 세목 중 'TV 수상기'에 '녹화기, CCTV'를 추가 명기하고 청각 기재 세목 중 '어학 교육 장치'를 '마이크'로 변경하였으며 '어학 교육 장치'는 '기타 특수 기재'의 세목으로 신설하였다.

임시안은 각 시, 도 교육원과 일선 학교의 자료실에서의 현장 사용과 수차례 결친 실험 학교 교사 교육, 연구 기관 및 도서관 전문가들의 협의 결과 미비 사항과 문제점이 수정 보완되어 1971년 5월 18일 시청각 교육 자료 분류 기준안이 최종안으로 나오게 되었다(종류별 분류는 표 3, 4 참고, 기재와 교재의 세목 분류 및 교재의 내용 분류는 임기형의 pp. 215-19 참조 요망).

임시안이 보완된 중요 사항과 그 사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수 자료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켜 도서는 물론 과학 자료까지를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분류안의 명칭 앞에 '시청각'을 삽입하였다.
- ② 기본 분류 7의 실험 실습 관찰 자료가 제거되면서 그대신 자료의 양이 많고 규격과 종류가 다양한 영사, 환등 자료가 환등 교재와 영사 교재로 나뉘어서 독자적인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 ③ 일률적으로 자료라 부르면 것을 학습 내용이 담겨진 것은 교재로, 학

〈표 1〉 교육자료 종류별 분류기준(주류 및 강목 입시안)

<표 2> 교육 “기재” 세목분류기준(요목) 임시안

세목분류		0	1	2	3	4	5	6	7	8	9
0											
1	전 원 기 재	발 전 기	전 지	변 압 기	정 류 기	전 류 기	전원코드	암 막	영 사 막	영 사 대	기 타
2	영사, 환동기재	영 사 기	슬라이드 줄줄이	현미현등기	입체환동기	마이크로 필름환동기	투시등기	실물환동기	녹화장기	TVC	C.C.T.V
3	청 작 기 재	누음 기	축 음 기	전 축	라디오	증폭기	확성기	마이크	음향효과기	기구	
4	사진, 영사기재 체적기재	사진 기	촬영 기	복사 기	확대 기	인화	조명기구	편집기구			
5	미술, 공작기구 (제작·용)	제도기구	회화기구	조각기구	등사기구	목공구	철공구				
6	칠판, 캐시, 전 시기구	칠자	판	용 판	카야드판	에스테이 도판	제 시판	전 시 대	피도질이	삽작 대	기 타
7	연시, 국화기구	그림국	그림자국	틀	인형극틀	무대기구					
8	점검 보수 기구		점검기구	수리기구	필름보수 기구						
9	기 타 기 재		독서조절기	(TM) 학습기체	어학교육 장치						

출처 : 임기형, 1972, p.209.

1. 종류별 분류기준
가. 기초 및 유별분류 기준(주류 및 강목)

주류	강 목	0	1	2	3	4	5	6	7	8	9
000	기 체 기 구	(참고자료)	전원기체	제시기구	영상기체	음향기체	TV기체	극화기구	사진기체	공작기구	기 타
100	사진·그림교재	"	사 전 그 립	그림엽서	포스터	음판교재	카이드교재	문서 양식	스크랩북	"	
200	도 해 교 재	"	페 도 도 표	그 래 프	지 도	안 내 도	설 계 도				"
300	환 등 교 재	"	○슬라이드	투시한등	마이크로	필름					"
400	영 사 교 재	"	○영화필름	○녹화테	이 프						"
500	음 향 교 재	"	음 반	녹음테이프	녹음섞이트						"
600	입 체 교 재	"	실 물	유 물	표 본	모 형	지 구 의	록 형	미 오 라 마	사 판	"
700	국 화 교 재	"	연 국	인 형 국	그 림 국	그림자국					"
800	전학 향토 자료	"	자연환경	고적	문 행정, 사	체무, 금	연구, 교	산업기관	교통, 통	문화, 사	"
900	기타 특수 교재	"	비정부서용	컴퓨터용	자료						"

○표시한 교재는 세 분류표를 작성함.

- 주) 1. 각 주류별로 강목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자료는 (기타)로 분류.
- 2. 전학 향토자료중 기타에는 인간자원을 포함.

출처 : 임기형, 1972, p.213.

<표 3> 시청각 교육자료 분류기준 (최종안)

四

나. 기자·기구의 종별 분류 기준(요목)

요	목	0	1	2	3	4	5	6	7	8	9
강	목	기 (제기구)									
000	000	기 (참고자료)									
010	전 원 기 채	(참고자료)	발 전 기	축 전 지	변 암 기	정 류 기	충 전 기	○교오드류			기 타
020	게 시 기 구	"	○ 철 판 용 판	카아드판	에스테이 드판	게 시 판	전 시 대	체 도절이	삼 각 대	"	
030	영 상 기 채	"	○영사기	○슬라이드	마이코로	투사환등기	실물환등기	○영 사 대	암 막	"	
040	음 향 기 채	"	○녹음기	전 축	라 디 오	증폭기	스 피 커	마 이 크	이 어 폰	음 향	효과기 구
050	T V 기 채	"	○녹화기	○카 브 라	○녹 화	수 상 기	녹화콘솔	스 웨 이 체	와 이 퍼	천 혈 체	"
060	극 화 기 구	"	그림극틀	그림자극틀	인형극틀	무대기 구				극 혈 용기 체	"
070	사 진 기 채	"	○카메라	○촬영기	○복사기	확 대 기	○현상기 구	조명기 구	영화필름	현	"
080	공 차 기 구	"	체 도기 구	회화기 구	조작기 구	인쇄기 구	록 공 구	철 공 구			"
090	기 타	"	독서조절기	(T, M) 티칭여신 장	(L, L) 어학교재				모의장치	컴 퓨 터	"

비고 ○ 표시한 기제·기구는 세분류 기준을 작성함.

- (주) 1. 마이크로필름 활동기에는 마이크로 카이드리다 포함.
 2. 증폭기에는 콘솔 포함.
 3. 이어폰에는 헤드폰 포함.
 4. 요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체·기구와 부수기체기구는

총처 : 임기홍, 1972, p.214.

습 내용을 소개 안내하는 것은 자료로 구별하여 이름지었다.

④ 자세하게 나열식으로 전개되던 주류나 강목의 명칭이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⑤ 전체적인 체계를 잡기 위하여 기재의 강목 배열 순서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⑥ 점검 보수 기구가 삭제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던 TV 기재가 독립된 강목을 갖게 되었다.

⑦ 이용도가 적은 강목과 요목이 일부 삭제되었고 잊은 활용이 예측되는 자료는 세분류되었다.

최종안에서 시청각 교육 자료라 함은 시청각적인 교육 지도에 직접 사용되는 교재 및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 자료와 이를 교재 자료의 제시 또는 시청등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교재 제작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재 기구 및 설비를 이야기한다고 정의내렸다(시청각 교육 신문, 1973년, 1월 29일, 6, 7면)

또 모든 시청각 교육 자료는 종류별 분류, 교재 내용별 분류 및 수입 순 번호의 차례로 연결 분류되는데 이를 세 숫자는 데쉬(—)로 연결지게 고안되었다. 즉, 첫 단계의 종류별 분류에서는 시청각 기재와 자료를 십 구분하여 이를 주류라고 불렀다. 주류에서 Hardware인 기재나 기구는 ○○○으로 하고 Software는

100—사진, 그림 자료,	200—도해 자료
300—환등 자료	400—영사 자료
500—음향 자료	600—입체 자료
700—국화 자료	800—견학, 향토 자료

등으로 나뉘어졌으며 기타의 특수한 자료는 900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분류의 기초는 각각 그 교육 자료가 지니고 있는 작용의 기능과 제시의 절차 및 형태 등의 유사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⑧ 사용 시기가 오래 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⑨ 구조와 작용면에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⑩ 형태가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⑪ 작용과 제시의 절차 또는 형태가 유사한 것은 근접 배열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였다(임기형, 1972: 210).

주류는 다시 십 구분되어 강목으로 나뉘어졌으며 십 단위의 수는 또다시

열 단계로 나뉘어져 요목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소술풀점 이하의 숫자는 세목이라 하여 필요에 따라 분류 사용케 고안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기재를 제외한 자료의 내용을 KDC에 의해 일반 도서와 같이 십진 분류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는 종류별 자료의 수입 순 번호(accession number)를 적어 주어 일련의 숫자가 세 개 나열되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면 영화 필름 자료 중 20번 째로 입수한 '교통의 발달'이란 제목의 16mm 필름은 410.3-326.3-20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410.3은 16mm 영화 필름의 종류별 분류 번호이고 326.3은 교통에 해당하는 KDC의 내용별 분류 번호이며 마지막 숫자 20은 영화 필름 자료 중에서는 20번째로 입수한 것임을 뜻한다.

중앙 시청각 교육원이 시, 군 교육 자료실이나 학교의 자료 분류 방법의 통일을 피하고 새로이 개발하는 교재를 미리 분류하여 보급함으로써 분류 업무의 번거로움과 비통일성을 피하고 시간과 노력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게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다.

그 외에도 이 방법은 개개의 기관이나 단체가 임의로 고안한 분류 방법이 아니라 문교부 산하의 중앙 시청각 교육원이 만들어 행정적으로 적용을 권장하였기에 이제까지의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일반화가 쉬웠다.

그러나 항목별 숫자가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기재나 기구를 세목까지 사용하여 네 자리 숫자로 종류 분류한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032의 슬라이드용 환등기를 032.1—필름 스트립 겸용 환등기, 032.2—2''×2'' 환등기, 032.3—대형 환등기, 032.4—필름 스트립 환등기, 032.5—현미 환등기, 032.6—입체 환등기 등으로 세분해 놓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겠다.

더구나 교재의 경우 네 자리 숫자(백 단위 수에 소술풀점 이하 한 자리)로 자료를 일괄 분류한 결과 어떤 경우에는 요목이 없이 세목 분류가 되어(예를 들면 16mm 영화 필름의 경우 영사 교재는 주류 분류에 의해 400, 강목 분류에 의해 영화 필름은 410이 된 데 반하여 16mm 영화 필름은 요목 분류가 없이 세목 분류로 전락 뛰어 410.3이 되었다. 이는 십 단위 숫자 다음 일 단위 숫자가 없이 소술풀점 이하로 넘어가게 된 것임) 진정한 의미의 십진 분류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16mm 영화 필름은 410.3 보다는 요목 분류를 하여 413으로

정리함이 훨씬 일괄성이 있고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용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백 단위 숫자를 사용한 점도 생각해 볼 점이다. 왜냐하면 KDC를 사용한 두 번째 단계의 내용별 분류도 백 단위 숫자를 사용하므로 두 개의 백 단위 숫자가 데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수입 순 번호가 또 연결되므로 이 방법에 익숙치 못한 일반 실제 자료 사용자를 자칫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종류별 구분에는 AECT가 권하는 자료와 관련된 두 자리의 알파벳 즉, 예를 들면 릴 형태의 16mm 영화 필름의 경우는 영화(motion picture)를 상징하는 M에 릴 형태를 상징하는 P를 결합시켜 MP라는 매체 기호를 사용하면 자료의 내용과 형태를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자료의 내용 분류에 있어서 KDC를 사용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즉, 언젠가는 도서와 nonprint 자료가 합쳐질 것을 고려한다면 분류 방법을 KDC로 못박지 말고 각 자료실의 형편, 자료실의 크기, 소장 양이나 도서관에서의 분류법 사용 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또, 실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료실 담당 요원들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KDC의 획일적인 적용은 자료를 너무 세분하는 나머지 분류 경험이 미숙한 담당자들에 의해 부정확한 분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셋째 단계의 수입 순 분류에서 자료의 수입 순에 따라 번호를 주어 정리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의 자료가 구입 시기가 다름으로 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특정 자료의 복본(copy)이 추가될 경우에도 원래의 자료와 서로 떨어져 보관되므로 자료의 저장 공간을 줄여 준다는 장점 이외에는 특정 주제에 관한 자료를 찾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학교 자료실의 nonprint 자료는 도서와는 달리 한 종류가 천여 점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nonprint 자료에 대한 종류별, 내용별, 수입 순별의 세 단계 분류는 오히려 비실용적, 비경제적인 것 같다.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매체 부호에 내용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혼란없이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통일안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적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일선 자료실의 담당자들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 보급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시 산하 5개의 교육 구청은 자료의 분류 목록 방식이 전혀 통일되지 못하여 사용자가 심한 혼란을 느끼기도 하였다(김인숙, 1982: 63-64).

D. 도서 관계 기관의 분류안

교육 공학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하여 nonprint 자료의 분류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온 사실과는 맥을 달리하여 그동안 도서 관계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의해서도 nonprint 자료의 분류를 다룬 몇 권의 책과 연구 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비록 도서 자료의 분류에서와 같이 활발하고 깊이 있는 연구라고는 볼 수 없으나 몇몇 관심있는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지고는 있었다.

즉, 1968년 한국 도서관 협회가 ‘비도서 자료의 정리’를 출판한데 이어 박성기는 1971년에 ‘도서 이외 자료의 정리와 활용’을, 1985년에 김남석은 ‘비도서자료’를 펴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도서 관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써여진 자료인자라 주로 Nonprint 자료의 정의, 종류와 그 특성 및 이들의 이용 방법 등에 역점을 두어 설명을 하였으며 Nonprint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없었다.

단지 Nonprint 자료는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모든 자료를 한 가지의 통일된 분류 체계로 일관시킬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 현 단계에서 Nonprint 자료가 도서에 비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양이 적기 때문에 굳이 체계적인 분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 책 외에도 손정표의 ‘테이프 목록 자료의 서가상의 분류와 표목 선택에 관한 고찰’, ‘레코드의 분류 및 함가 번호에 관한 연구’, 조기홍의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시청각 자료의 정리—레코드, 슬라이드, 녹음 테이프를 중심으로’ 등의 몇 편의 연구가 도서 관계 잡지에 소개되었으나 이들은 개인이 주장한 시안에 불과한 것으로 Nonprint 자료의 극히 일부분인 특정 자

료만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으므로 이를 방법을 전반적인 Nonprint 자료의 분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비록 KDC가 시청각 자료까지도 무리 없이 분류할 수 있다(이병수, 1981:30)고 하며 이를 장점 중 한 가지로 내세우기는 했으나, Nonprint 자료의 분류에 관한 한국 도서관 협회나 도서 관계 단체의 구체적이고도 통일된 방법의 제시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E. 서울시 교육 연구원 분류안

71년도의 시청각 교육 자료 분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각급 학교나 시, 군 자료실에서 실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던 차, 1982년 서울시 교육 연구원에서는 조 성선, 김 윤식, 강 미혜 등이 중심이 되어 Nonprint 자료의 효과적인 분류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1971년에 중앙 시청각 교육원이 제정한 분류 기준을 참고는 했으되 조만간 도래 할 Nonprint 자료의 폭증과 도서와의 통합 분류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정리 및 검색을 컴퓨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안이라고 했다(조성선, 개인 면담, 1985. 11月).

이 방법은 Nonprint 자료의 내용 분류에는 KDC를, 형태 분류는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4판에서 소개한 매체 부호를 별치 기호로 사용하였으므로 새롭게 고안한 독창적인 분류 체계라고는 볼 수 없다.

82년도 시청각 자료의 분류안에서는 아래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조성선, 1982: 54-55).

① 시청각 자료 분류라 함은 광의로 시청각 교재와 기재의 분류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나 여기서는 교재의 분류만을 취급한다.

② 시청각 자료는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로 취급하여 그 분류 방법도 동일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③ 현재 학교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분류표는 대부분 한국 십진 분류법(KDC)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청각 자료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 도서와는 별도로 비치하여 활용해야 하므로 주제 분류에 앞서 별치 기호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⑤ 별치 기호는 숫자로서 번호화하는 것보다는 이용자에게 이해와 기억을 도울 수 있도록 자료명(매체명)과 관계있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매체 약기호로서 대신한다.

⑥ 동일한 매체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자료들을 다시 구분하여 배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주제 분류 기호 다음에 자료 기호를 배정한다.

⑦ 이상과 같이 시청각 자료의 분류는 매체 약기호—주제 분류 기호—자료 기호의 순으로 횡으로 기입하거나 3행 종으로 기입한다.

실제 분류에 있어서 첫 단계로 각 자료의 종류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단위의 영문자를 매체 약기호(media code)로 사용하였다. 즉, 특정 자료를 나타내는 첫 영문자에 두 번째 글자는 통일 약기호로 A가 결합되는 기본 형식(예를 들면 Slide는 SA)을 취하되(표 5 참조) 특수 형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특정 영문자를 사용(즉 Mount Slide는 SL)한다(특수 매체의 종별 약기호는 조성선의 pp. 54-55 참조 요망).

이들 매체 약기호는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AECT, 4th Ed. 1976 : 26-28)에 소개된 매체 부호를 주로 참조하였으나 우리나라

〈표 5〉 일반매체별 영문약기호

약기호(알파벳)	매체명	영어명
A	녹음 테이프	Audio Recording(Tape Record)
B	보오드(판)자료	Board
C	컴퓨터	Computer
D	음반	Disc
E	모형	Model
F	견학자료	Field Trips
G	지구의	Globe
H	도표	Chart
M	영화	Motion picture
N	마이크로휘업	Micro form
O	실험 실습자료	Experiments kit
P	사진 및 그림	Picture
Q	연시, 국화	Demonstration
R	실물	The real
S	슬라이드	Slide
T	OHP 자료	Transparency(TP)
V	비디오테이프	Video Recording

의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되었다.

참고로 매체 약기호가 AECT 부호와 다르게 배정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매체 약기호	AECT 4판	82년도 시청각 자료의 분류안
AA	오디오 리코딩	오디오 리코디아(audio recordia)
BA	"	보오드 자료(칠판, 자석판, 응판……)
DA	기계 가독 데이터화일	디스크
FA	"	전학 자료
GA	게임	지구의
OA	디오라마	실물 환등, 실험설습 컷
QA	지구의	연시, 극화
RA	실물	디오라마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에 따라 KDC를 적용하였는데 주류, 강목, 요목 및 세목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분류하였다. 이 경우 너무 세분하게 되면 분류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국민학교 도서관에서는 강목(100구분)까지만, 중고등 학교는 요목까지 (1,000구분) 분류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삼 단계로는 도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의 자료가 많이 있을 경우 배열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서 기호를 첨가했다.

도서 기호는 원래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저자가 저술했을 때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저자의 성 첫 글자에 숫자를 덧붙여 사용하는데 Nonprint 자료의 경우에는 저자가 한 사람 이상일 경우가 많으므로 저자의 성 대신 제목의 첫 글자를 이 채널의 ‘동서 저자 기호 제5판’을 사용하여 두 단위 숫자로 쓰고 () 속에 수입 순을 밝혔다.

즉, 슬라이드 중 두 번째로 입수한 ‘과학과 생물’이란 제목의 2''×2''짜리 슬라이드는 SL-470-과 92(28) 혹은 SL 470과92(28)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SL은 2''×2''짜리 슬라이드를 가리키는 종류별 분류 기호이고 470은 순수 과학 중 생물 과학에 해당하는 KDC의 내용별 분류 기호이며 과 92는 ‘과학과 생물’을 동서 저자 기호표를 적용해 제목의 첫째 자 ‘과’에 ‘궁’의 자음 기호 9와 ‘ㅏ’의 모음 기호 2를 결합시킨 것이다. ()속의 28은 생물 과학에 관한 슬라이드 자료 중 28번째로 입수함을 의미한다.

서울시 교육 연구원은 그동안 새로 제정한 시청각 자료 분류안의 보급과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관계 담당자 지도와 연수 등의 일련의 작업을 편

결과 현재 서울시 교육 연구원 산하 7개의 전 교육 자료실에서는 이 방법으로 자료를 통일 분류하고 있으며 해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분류 목록집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82년도 분류 방법에서의 매체 약기호의 사용은 약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AECT가 자료 분류 시 매체 기호에 LC나 DDC를 결합하여 적용했듯이 82년도 안에서도 매체 기호에 KDC를 결합시켜 사용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오드 자료(칠판, 자석판, 응판 등)와 견학 자료를 새로이 삽입하여 영문자를 배당한 결과 원래의 AECT 코드와 다른 영문자를 갖게 된 매체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첫번째 영문자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각 매체에 영문자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물 환등기(사진—OP, 파일—OF)와 실험 실습 킷(실험 킷트—OE)에 동일한 문자 OA를 배당함은 타당치 않으며 이는 실 사용자에게 많은 혼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하나의 자료를 분류하는데 종류별 분류, 내용별 분류에 이어서 기호를 적용하고 또 수입 순 번호를 기입시킴으로써 결국 4 단계에 걸친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때 도서 기호나 수입 순 번호의 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분류하기보다는 청구 번호의 배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도서 기호의 원래 사용 목적은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여러 저자에 의해 쓰여졌을 때 이를 내용에 이어 이차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료는 서로 다른 숫자와 기호를 갖게 되는데 구지 그 다음 단계로 수입 순 번호를 ()속에 첨가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또 도서 기호를 적용하되 저자명 대신 자료명을 부호화한 점도 생각해 볼 점이다. 비록 Nonprint 자료는 단일 저자에 의해서 보다 여러 사람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를 저자명보다는 자료명을 부호화했다고는 하나 나중에 도서와 Nonprint 자료가 합쳐져서 운영 관리될 때, 자료명과 저자명 사용 불일치로 또 하나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재철의 동서 저자 기호 제 5 표를 사용한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장서량이 40만에 달하는 이화 여자 대학교의 경우도 제 2 판 수정판을 사용하

여 별 불편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도서에 비해 그 양이 현저히 적은 Nonprint 자료를 5표를 사용한 점은 필요없이 복잡하게 정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자료의 내용별 분류 시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분류됨을 피하기 위하여 국민 학교는 강목까지, 중·고등 학교는 요목까지만 분류하라고 했던 정을 상기해 보면 이는 상호 모순이 된다고 본다.

분류안을 보급하는 관점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 연구원 등의 행정 기관이 주도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로서 현재 7개의 서울 시내 교육 자료실 만이라도 통일된 분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은 실로 고무할 현상이다. 그러나 찾은 행정적 담당자의 이동에 의해서 분류법의 계속적인 후속 연구나 보완 작업 등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보급과 적용에 한계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실제 분류안 작성은 주도했던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자료의 전산화에 관한 기초 작업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새로 부임하는 후임자가 이를 작업을 연결 전개해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의 시안으로 시도된 이상으로써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나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본래 어느 시대, 어느 도서관, 어느 자료에나 통용될 수 있는 완벽한 분류표란 바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도서관이 갖는 숙명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고도 이야기되지만(박봉석, 19B, 간행사에서) 아직 교육 공학회나 KLA와 같은 전문 단체에서 통일된 Nonprint 자료의 분류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에 대한 연구와 기존 분류안에 관한 계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IV. 결 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Nonprint 자료가 도서관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도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된 분류규칙은 만들어 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계속 개발되어 자료의 일부로 첨가되는 이상 완벽한 분류 규칙은 아마도 존재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미 도서 자료의 분류를 위해서는 50여가지 이상의 규칙이 개발되어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LCC와 DDC는 대표적인 것

으로 손꼽히고 있다.

사실 도서는 그 크기나 형태가 비슷하고 또 사용자의 관심사는 그 주제에 있으므로 내용에 의해 분류를 하면 되나 Nonprint 자료는 그 모양과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어떤 종류의 매체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형태 분류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Nonprint 분류안들은 대개 내용 분류에 있어서는 KDC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Nonprint가 합쳐져 관리, 운영 될때에는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규칙의 종류, 미디어 센터의 특성, 자료의 규모 및 사용자의 수준등을 감안하여 KDC 외에도 LCC나 DDC 등의 유통성 있는 선택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 도서의 경우 참고 서적(reference)은 R, 잡지(periodical)은 P등의 영문 자를 사용하여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었던것 처럼 Nonprint 자료에서도 형태 분류시에는 특정 자료와 관련이 있는 영문자를 사용하는 편이 100단위 숫자의 사용보다 편리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이미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문자 사용을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겠다.

현재 대부분의 기존 분류안들은 도서 기호나 입수 번호를 포함한 청구 번호의 결정까지를 분류 작업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 작업은 형태와 내용 분류로서 충분하다. 필요이상의 복잡한 도서 기호표나 불필요한 입수번호의 첨가는 오히려 자료의 정리나 활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통합된 미디어센타를 설립함으로서 도서와 Nonprint 자료를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다. AECT와 ALA는 교육, 공학 및 그밖의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1975년에 'Media Programs'로 개정판이 나옴)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독자 노선을 고집하던 도서관(library)과 시청각 센타(audiovisual center)가 미디어 센타(media center)로 발전하게 되었고 사서(librarian)나 시청각 전문 요원(audiovisual specialist)도 미디어 전문 요원(media specialist)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도 통합된 형태의 미디어 센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통일된 규칙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있는 개인은 물론 한국 도서관 협회, 한국 교육 공학회 및 관련 행정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분류 규칙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의 적용은 각 미디어 센터의 유형, 규모 및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 미혜, “시청각자료의 분류”, 「시청각 자료의 분류와 활용」,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2 : 35-73.
- 국회 도서관, 「도서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제 1집(도서관 참고자료), 국회도서관협회, 1969.
- 김 남석, 「비도서 자료—정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4.
- 김 윤식, “시청각 자료와 도서관”, 「시청각 자료의 분류와 활용」,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2 : 15-31.
- 김 인숙, 「지역교육 자료실의 실태조사연구—서울시 교육구청 자료실을 중심으로」,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 정소, 「자료 분류론」,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 리 재철, 「한국 순도서 기호법」,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 박 봉석, 「한국 십진 분류표」, 서울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0.
- 박 성기, 「도서 이의 자료의 정리와 활용」, 서울 : 현대 교육총서 출판사, 1971.
- Burgess, Robert, 「분류 목록」, 서울 : 연세대학교, 1960.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시청각 자료의 분류와 활용」, 서울 : 동협회, 1982.
- 손 경표, “레코드의 분류 및 합가번호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 5권, 제 9호 (1968. 10) : 15-23.
- 손 경표, “테이프 목록자료의 서가상의 분류와 표목 선택에 관한 고찰”, 「도서관」, (1978. 9) : 10-22.
- 시청각 교육신문, “교재 분류 협의회”, 1971. 3. 29, 3면.
- 시청각 교육신문, “교재 분류 통일안”, 1971. 4. 26, 2면.
- 시청각 교육신문, “기교재 분류 규정 재정키로”, 1971. 5. 24, 3면.
- 시청각 교육신문, “시청각 교육자료 분류기준”, 1971. 6. 7, 6·7면.
- 시청각 교육신문, “AV 교재 분류기준 일선서 거의 외면”, 1971. 10. 18, 2면.
- 시청각 교육신문, “AV 교재 분류 기준 지지부진”, 1972. 6. 12, 1면.
- 시청각 교육신문, “시청각 기교재 분류법을 확정”, 1973. 1. 29, 6·7면.
- 이 병수, “국제 십진 분류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도서관」, 제 28권, 제 8호(1971. 8) : 4-8.
- 이 병수, 「한국 십진분류법 해설」, 서울 : 한국 도서관협회, 1981.
- Kishio, Kondo, “LC 분류법의 변천 I·II,” 이승주(역), 「도서관」 제 24권 제 1호.

- 제 2 호(1969. 1~2月) : 21-28 : 22-27.
- 이오희, "AV자료분석카드 작성과 활용의 실제", 「과학교육과 시청각교육」, (1972. 3) : 18-22.
- 이 준해, "시청각 자료의 관리에 관한 몇 가지 기본과제—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보관을 중심으로", 「시청각교육」, 제 1권 제 1호(1964. 9) : 65-68.
- 임 기형, "시청각자료자료 분류기준 통일안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현대적 교육자료의 개발 활용 및 교육의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공학연구회, 1972 : 205-223.
- 임 종순, 「분류표 비교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63.
- 장 일세, 「한국 목록규칙해설」, 서울: 한국 도서관협회, 1981.
- 조 정선, "교육정보자료의 분류와 관리", 「경남교육」, 1983 : 51-65.
- 조 기홍,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의 시청각 자료의 정리—레코오드, 슬라이드, 녹음테이프를 중심으로", 「도협월보」(1967. 11) : 5-10.
- 주 영주, "기업체 사원 연수교육에 있어서의 매체활용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 15집, 성곡 학술문화재단, 1984 : 485-540.
- 주 영주, "Nonprint 자료의 목록규칙에 관한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한국교육공학 연구회, 1985 : 21-44.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용어집」, 서울: 동협회, 1966.
- 한국도서관협회, 「비도서자료의 정리」, 개정판, 서울: 동협회, 1982.

〈국외 문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 Chicago: ALA, Washington, D.C.: AECT, 1969.
-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4th ed., Washington, D.C.: AECT, 1976.
-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Educational Technology: A Glossary of Terms*, Washington, D.C.: AECT, 1979.
- Bakewell, K.G.B., *Classification and Indexing Practice*, London: Clive Bingley and Linnet Books, 1978.
- Barden, B.R., *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Chicago: ALA, 1937.
- Bennie, Frances, *Learning Centers-Development and Operation*,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7.
- Broxis, Peter F., *Organizing Arts*, London: Clive Bingley, Ltd., 1968.
- Chan, Lois Mai,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McGraw-Hill Book Co. 1985.
- Chan, Lois Mai, *Immroth's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3rd ed., Littleton,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0.
- Clawson, C.R. and C.A. Rankowski,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of Slides Using

- Color Photocopying," *Special Libraries*, Vol. 49, No. 8 : 281-286.
- Cohen, Alley, "Classification of Four Track Tap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6, No. 3, 1962.
- Comaromi, John P. and others, *A Survey of the Use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ake Placid Foundation, Forest Press, 1975.
- Daily, Jay E., *Organizing Nonprint Materials—A Guide for Librarians*,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72.
- Dewey, Melvil, *Abridg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1th ed., Forest Press, 1979.
- Downing, Mildred Harlow,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5th ed., North Carolina: McFarland and Company, Inc., 1981.
- Gibson, Gerald, "Sound Recordings," *Nonprint Media in the Academic Libraries*, ed. Pearce S. Grove, Chicago: ALA, 1975.
- Gillespie, John T. and Diana L. Spirt,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R.R. Bowker Company, New York, 1983.
- Hicks, Warren B. and Alma M. Tillin, *Developing Multi-Media Libraries*, New York: R.R. Bowker Company, 1970.
- Immroth, John Philip,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ed. Kent, Alle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Vol. 15, 1975 : 93-200.
- Maltby, Archur,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1975.
- Maltby, Archur,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15th ed., London: Andre Deutsch, 1978.
- Mowery, Robert L., "The Trend to L.C.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 389-397.
- Osborn, Jeann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9th Edition: A Study Manual*, Littleton,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2.
- Rofsvold, Margaret L., *Audio-Visual School Library Services*, Chicago: ALA, 1949.
- Tansey, Luraine, "Classification of Research Photographs and Slide," *Library Trends*, Jan., 1975 : 417-426.
- Voice of America, "A Library for the People," No. 11, Oct./Nov. : 5-8.
- Weihs, Jean, *Accessible Storage of Nonbook Materials*, Oryx Press, 1984.
- Weihs, Jean Riddle, Shirley Lewis and Janet Macdonald, *Nonbook Materials—The Organization of Integrated Collection*, 1st ed.,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73.
- Wilkinson, Gene L., *Media in Instruction-60 Years of Research*, Washington D.C.: AECT, 1980.

- Wisdom, Aline C., *Introduction to Library Services—For Library Media Technical Assistant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 Wynar, Bohdan S.,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0.
- Young, Heartsill,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Chicago: ALA, 1983.